

기사 주소: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2020802109931731001](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2020802109931731001)

## ‘송곡과학기술상’에 한세광 포스텍 교수 선정

이준기 기자 bongchu@dt.co.kr | 입력: 2022-02-08 09:54

당뇨진단 '스마트 콘택트렌즈' 개발 등

차세대 의료기기 학문과 산업발전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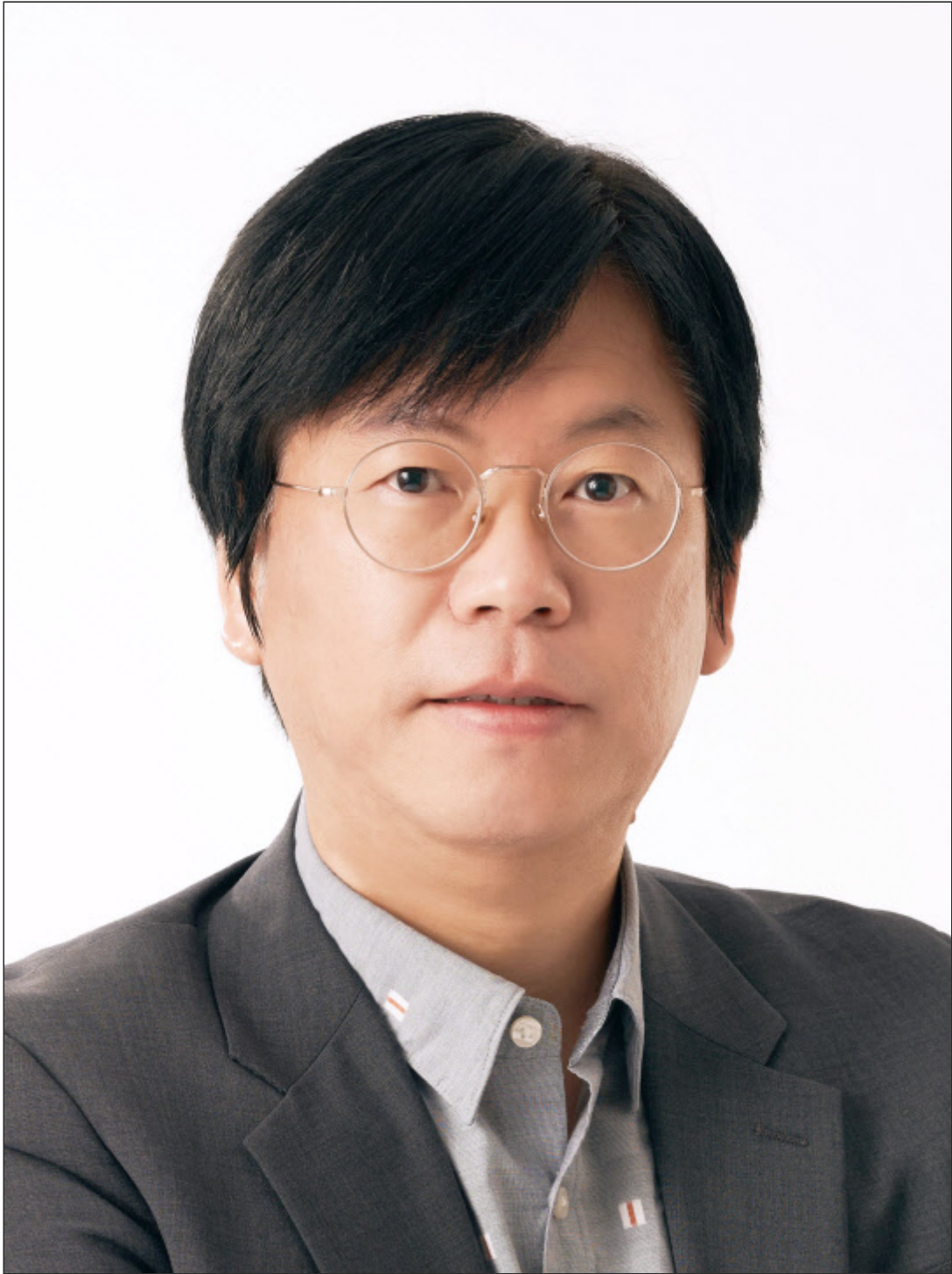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제24회 송곡과학기술상 '신소재 개발 분야' 수상자로 한세광(사진) 포스텍 교수가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송곡과학기술상은 KIST 초대 소장과 과학기술처 장관을 지낸 송곡(松谷) 최형섭 박사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1999년 제정됐다. 세계적 수준의 신소재를 개발했거나, 국가 과학기술과 산업경제 발전에 기여한 과학기술자를 발굴, 시상한다.

한 교수는 생체 재료를 이용한 스마트 나노의약 관련 기술 4건을 산업화했고, 생체 고분자 하이드로젤을 이용해 난치성 질환 유전자 변형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했다. 아울러, 당뇨 진단과 합병증 치료 약물전달시스템이 장착된 스마트 콘택트렌즈를 개발해 차세대 스마트 웨어러블 의료기기의 혁신과 융합 연구에 기여했다.

한세광 교수는 "신소재와 스마트 웨어러블 의료기기 분야의 융합연구를 통해 여러 질환의 진단과 치료가 동시에 가능한 기술개발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시상식은 오는 10일 KIST 본원에서 열리는 '제56회 개원 기념식'에서 있을 예정이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한세광 포스텍 교수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DigitalTimes All Rights Reserved.